

## 국내 유색병 개발현황과 재활용 문제

### 1. 서론

흔히 유리병이라고 하면 소주병으로 대표되는 E·G(Emerald Green), 맥주병으로 주로 쓰이는 갈색병인 Amber병, 코카콜라가 생산되는 주의 이름을 따서 붙인 G·G(Georgia Green)병, 프린트병이라 불리는 무색병 등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이처럼 단조로운 유리병업계에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성향에 맞춰 갖가지 색상의 유색병이 등장하였다. 지난 95년 말 개발되어 96년 시판된 보해양조(주)의 '김삿갓'을 중심으로 일어난 유색병의 돌풍은 물론 진로가 독점해 오다시피하던 소주시장의 판도변화를 일으켰으며 뒤이어 두산경월의 '청산리벽계수', 진로의 '참나무통맑은소주', 선양주조(주)의 '황진이' 등 기존 소주와 차별화된 제품들이 유색병에 담겨 쏟아져 나오면서 최근 몇년간 긴 침체를 면치 못하던 유리병업계가 활기를 되찾아 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환경친화적인 포장재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각 업계별로 가장 환경친화적인 포장재의 적합성에 대한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96년 들면서 소비자,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가장 환경친화

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유리병이 다시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바로 유리병업계에 활력소 역할을 하고 있는 유색병의 환경친화성에 대한 문제 때문인데 이 글에서는 각 제품 및 생산업체별로 유색병의 현황과 재활용성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 2. D·E·G(Dark Emerald Green) - 보해양조(주) '김삿갓'



기존의 청색병이 투명해 내용물을 육안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보해양조(주)가 '김삿갓'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처음 선보인 자외선차단유색병 Dark Emerald Green은 내용물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검은 빛에 가까운 제품이다. 실제로 99%이상의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가지고 있고 대중주라는 기존 소주의 이미지에서 탈피, 프리미엄 소주라는 명칭에서 오는 신선함이 소비자들을 자극하면서 소비량이 증가해 주류업계는 물론 유리병업계에도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유리병

제품을 생산해달라는 보해양조(주)로부터의 제의를 받은 후 2~3개월간의 실험을 통해 국내 최초의 자외선차단유색병을 개발한 태평양종합산업은 D·E·G병을 개발하는데 있어 원료조성을 기존의 유리병과 다르게 하면서 자외선 차단 착색제를 첨가해 제품을 완성했다고 한다. 즉, 유리병을 제조할 때 베이스에 자외선 차단 성질을 가진 크롬을 깔고 용융시 기존 그린병이 +3가를 만들어주는데 반해 자외선 차단 유색병은 +6가의 상태를 만들어 줌으로써 자외선 차단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제품은 출시 후 프리미엄 소주라는 기존 제품과의 차별화와 색상 및 디자인의 미려함으로 커다란 호응을 받아 단 3개월만에 8백여만병이 팔려 나가며 보해양조(주)의 연간 매출액과 맞먹는 매출액을 올린 효자상품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김삿갓'은 대중주라는 넓은 인식을 가진 국내 소주시장에 프리미엄 소주라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소주의 품격을 높이고 시장확대에 커다란 역할을 한 바 있다.

### 3. D·G(Dark Green) - 두산경월 '청산리벽계수'

'김삿갓'의 선풍에 자극을 받은 각 소주회사들은 각종 유색병에 담긴 색다른 소주를 출시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뒤이어 나온 제품이 두산경월의 '청산리벽계수'이다.

두산경월의 요청에 따라 유색병의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두산유리(주)의 D·G(Dark Green)병은 병을 제조하는 기존 원재료에 색상을 만드는 착색제와 자외선차단제를 첨가해 만든 제품으로 초기에는 '김삿갓'보다 훨씬 진한

색상이었으나 제품출시 후 내용물 확인이 어렵다는 소비자 반응에 따라 '김삿갓' 제품의 색상과 유사할 정도로 흐려지게 되어 이제는 소비자들이 내용물을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청산리벽계수'라는 제품의 명칭은 물맑은 자연에서 나온 물로 만든 깨끗한 소주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린소주와 더불어 두산경월의 이미지를 이끌어 가고 있다.

### 4. B·G(Blue Green) - 진로 '참나무통맑은소주'

금비에서 생산하고 있는 진로의 '참나무통맑은소주'로 출시된 B·G(Blue Green)병의 경우에는 기존 E·G병의 제조방법에 안료의 배합을 달리해 제조하게 되었는데 이는 세계 최초의 색상이다. B·G병은 기존 E·G병 생산과정에서 밝기를 조정하고 안료를 배합해 제조했는데 상호는 물론 병의 모양, 병의 색상까지 모두 맑은 느낌을 주며 단가는 기존 유색병보다 저렴하다.

기존의 유색병에 담긴 소주들이 프리미엄 소주라는 명칭으로 기존 소주의 생산과정에 벌꿀 등 첨가제를 넣어 생산한데 비해 '참나무통맑은소주'는 365일간 참나무통에서 숙성시킨 숙성소주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맑고 깔끔한 맛으



로 기존 진로소주 못지않은 소비자들의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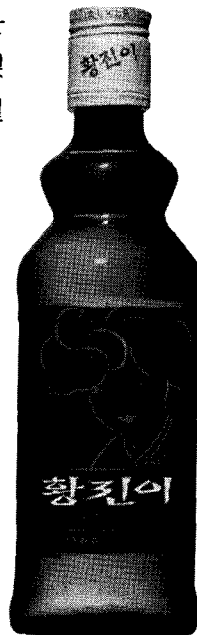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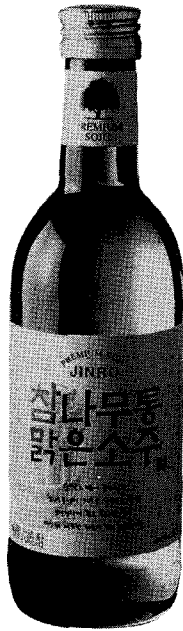
금비는 유리병의 경량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번 '참나무통맑은소주'는 용량을 줄여 경량화했고 신제품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스모크 컬러(Smoke Color)를 개발, 수출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

### 5. D·B(Dark Black) - 선양주조(주) '황진이'

선양주조(주)에서 개발한 '황진이' 제품은 병의 색상에 서는 '김삿갓', '청산리벽계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자외선을 99.5% 차단해 제품 본래의 맛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일반감미료대신 천연벌꿀을 사용해 빗어 우리나라 전통의 증류기법을 최첨단 기계설비로 도입, 순곡 증류주 원액을 1년 이상 숙성 브렌딩하여 그윽한 곡향이 입안에 남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황진이'는 뒤늦은 출시일과 낮은 시장점유율 극복에 대한 전략으로 기존 프리미엄 소주보다 한차원 높은 '품격높은 풍류의 술'이라는 또다른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지방소주의 이미지 탈피의 좋은 계기로 보고있다.

### 6. 유색병, 재활용에 문제있다?

환경문제가 불거진 이후 재사용 및 재활용



이 가장 유리한 포장재로 인정되어 오던 유리병이 유색병의 출시로 재활용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에 휩싸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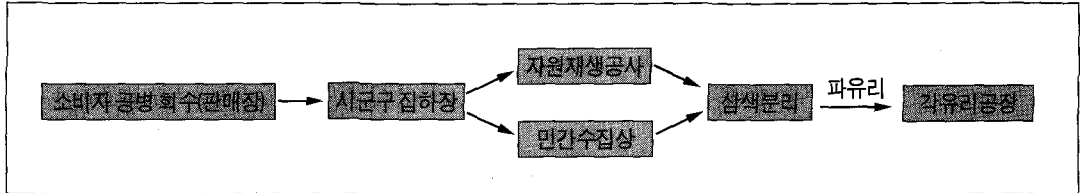
유색병의 경우 진한 색상으로 인해 재활용과정에서 기존 병과 섞이면 제 색이 나질 않아 재활용이 불가능한 제품이라는 것과 현 재활용 체계에도 헛점이 많아 여기에 한가지 색이 더 추가될 경우 분리수거 및 재활용은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 소비자 및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즉, 유리병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선행적으로 분리수거 체계 수립에 대한 실천이 있을 후 다양한 색상의 유색병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백색병의 경우 재활용시 파우리에 다른 성분이 섞이는 것이 문제시 되겠지만 그 외의 경우 일정량씩의 혼합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존 유리병의 재활용시 파우리의 혼합비율이 95년 현재 50% 정도이지만 유색병의 경우 60~70%를 웃돌고 있으며 그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자체적인 파우리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폐유리재활용협의회는 유색병이 개발된후 문제가 되는 것은 재활용의 문제가 아니라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화되어야 하는 공병회수문제와 분리수거체계라고 지적했다.

한 제병업체의 관계자는 재활용시 색상이 문제가 된다면 제지 중 색상지 재활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니냐면서 색

[표] 유리병 재활용 계통도



상의 다양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분리수거 등 재활용체계에 대한 정립에 주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7. 결론

외국의 경우 소비자들의 기호가 다양화됨에 따라 더 다양한 색상의 병들이 생산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유색병의 색상이 약 16가지 정도이고 선진국의 경우일수록 소비자들의 성향에 따라 더욱 다양한 색상의 유리병들이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4종류에 불과한 국내 유리병의 색상은 환경친화적 포장재에서 환경위해 포장재로 유리병의 위치를 한순간에 바꿔 놓았다.

이는 외국의 경우 재활용 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병의 색상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 반면 국내의 경우 소비자는 물론 생산업체 및 정부에서조차 그 체계에 대한 실천 및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지난 8월8일 환경부에서는 제병업체와 정부 관계자간의 미팅이 있었는데 이날 가장 문제시되었던 것이 분리수거 체계의 분산이었다. 기존에는 3색선별이었던 체계가 4색선별로 바뀌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던 이날 미팅이후 재활용에

용이한 방향으로 협의가 계속 진행중이다.

선진국일수록 더욱 다양한 색상의 병들이 생산되고 있고 수입주류 및 음료를 수입할 경우 이러한 색상의 병들이 그대로 유입 된다. 재활용에 용이함을 우선으로 한다면 수입병의 경우에도 제재조치가 가해져야 할 것이지만 소비자들의 성향과 욕구에 따른 다양한 색상의 병제품이 생산되는 것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유리병 수거 및 재활용 체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규제 및 법적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국제화 시대에 발맞출 수 있는 진정한 대안이 아닐까 한다. ☐

윤지은 기자

월간 「포장계」 구독문의  
TEL : (02) 780-9782